문지아이들

나는 언니가 좋아요

신현이 동화집 | 정주희 그림

독후활동지
교사용

#관계 #마음 #가족 #고민 #성장 #언니 #엄마 #아빠 #자아

교과연계

초등학교 3학년

국어 3-1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10. 문학의 향기

국어 3-2 4. 감동을 나타내요
6.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2. 내용을 간추려요

국어 4-2 2.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8. 생각하며 읽어요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책 소개

단정하고 정갈한 언어로 우리 곁의 어린이들을 맑고 투명하게 비추는 작품을 선보여 온 신현이 작가의 동화집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언니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를 밀도 있게 그려 낸 세 편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조곤조곤 속삭이듯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에도 아이들은 가슴을 졸이고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또 누구한테도 말 못할 뜻밖의 사건과 맞닥뜨려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실수하고, 후회하고, 회복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이 추운 날 몸을 녹여 주는 따뜻한 햇살처럼 웃음과 온기를 전해 줍니다.

지은이 신현이

2012년 동화 「새아빠」로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로 제24회 한국가톨릭문학상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은 책으로 동화 『저절로 알게 되는 파랑』 『저녁까지만 거짓말하기로 한 날』과 청소년 소설집 『쉬는 시간은 나와 함께』가 있습니다. 청소년 소설집 『성장의 프리즘』 『사랑의 입자』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상상력 쑥쑥

표지의 제목 빈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쓰고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 보세요.

기억력 쑥쑥

나는 언니가 좋아요

1. 진률이가 언니의 머리핀을 연못에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번

1. 언니를 좋아하는 만큼 언니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2. 연꽃 속에 사는 요정에게 선물하기 위해
3. 혼자 있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모두가 미워서
4. 언니가 내 색동 지갑을 먼저 연못에 던져서

2. 진률이는 자신의 색동 지갑을 왜 연못에 던졌을까요?

답: 언니가 좋아하는 머리핀을 연못에 던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와 하비

3. 하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④번

1. 하나는 엄마한테서 나는 치킨 냄새를 좋아했다.
2. 다섯 살이 된 하나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3. 하나는 마음속으로 하비를 언니라고 생각했다.
4. 하나는 우할머니의 이야기에 자기가 등장하는 것을 좋아했다.

4. 하나가 하비를 보고 기뻐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답: 함께 나비춤을 춘다

새아빠

5. 현우와 아빠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②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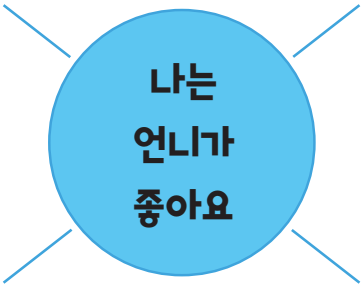
1. 현우는 코를 골며 자는 아빠를 보고 할머니 흉내를 내며 혀를 끌끌 찼다.
2. 아빠는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현우를 야단쳤다.
3. 아빠는 현우가 뭘 물으면 매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4. 현우는 아빠가 아들인 자신을 잘 보살피지 않아서 불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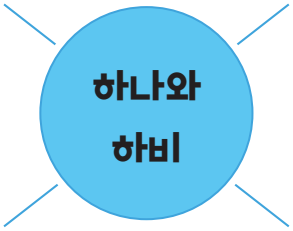
6. 용기를 내어 찾아간 철학 교수는 현우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나요? ③번

1. 청소,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다.
2. 아빠의 편의점 일을 도우라고 했다.
3. 현우에게 아버지의 새아빠가 되라고 했다.
4. 현우에게 친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했다.

사고력 쑥쑥

《나는 언니가 좋아요》의 세 편의 동화를 한 편씩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본 후 옆자리 친구와 비교하여 공통된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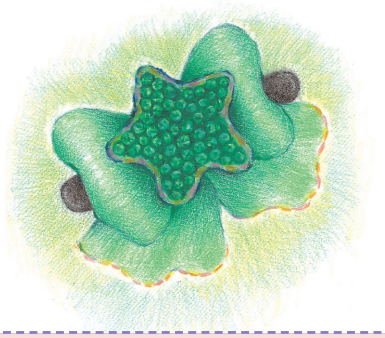
교사용 TIP 책의 주제, 중요한 내용, 감정, 이미지 등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며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해력 쑥쑥

아래 그림 카드를 참고해 진률이와 언니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떠올리면서 시간의 흐름에 맞게 줄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교사용 답안:

나는 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좋아합니다. 언니는 내가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싫어했지만 나는 언니의 바구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사용 답안:

언니의 액세서리 바구니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초록색 별 달린 머리핀을 움켜쥐었습니다. 나중에 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교사용 답안:

온 가족이 할머니 집에 간 날에 나는 연못가에서 강아지들하고 놀았습니다. 언니에게 비밀이 생긴 게 왠지 서먹하여 언니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용 답안:

내가 언니를 좋아하는 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머리핀을 연못에 던졌지만, 미안한 마음에 아끼는 내 색동 지갑도 던졌습니다. 아끼는 지갑을 잃었으니 이제 언니 곁으로 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휘력 쑥쑥

하나와 하비

1. 아래는 〈하나와 하비〉에 등장하는 같은 낱말이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입니다.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적어 본 후에 온라인 사전 검색을 통해 답을 비교해 보세요.

낱말	뜻
배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배나무의 열매

낱말	뜻
다리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낱말	뜻
바람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새아빠

2.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속담을 고르세요. ④번

현우는 수건 개던 손을 멈추고 한참을 꼼짝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슬그머니 할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입 밖으로 튀어 나간 말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때와 다르게 말없이 빨래만 갰습니다.

현우의 머릿속에 [ ] 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할머니가 속상해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1. 말이 씨가 된다.
2.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3.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4.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공감력 쑥쑥

내가 집에 왔을 때 언니는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언니가 계속 방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바구니가 든 언니의 서랍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앞에 서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18쪽]

1. 진률이는 언니의 머리핀을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은 점점 꼬여 가기만 합니다. 진률이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일이 꼬였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지갑을 걸고 있으니 왠지 언니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한테 서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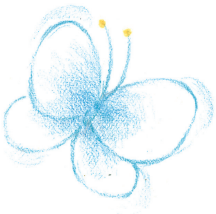
[18쪽]

2. 언니 모르게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한 진률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에 서먹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우할머니는 나비가 대견했습니다. 하나가 나비춤을 출 때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는데, 잠든 나비를 보면서는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천둥소리에도 끄떡없는 잠이라니요, 나비가 천둥보다 더 우람하게 느껴졌습니다.

[58쪽]

3. 잠든 나비를 보며 위안과 힘을 얻은 우할머니처럼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네가 앞으로 네 아버지의 새아빠를 하려무나."

처음 들어 보는 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중요한 말을 들은 것처럼 뿌듯하고 마음 깊이 만족스러웠습니다.

[87쪽]

4. 예상할 수 없었던 철학 교수의 새로운 제안에 만족했던 현우처럼 누군가의 제안에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나요?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
문지아이들 신간 소식